

있습니다. 그래서 복잡한 인간 관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닥터의 세계에서는 환자들과 감성교류 또는 매뉴얼에 없는 치료방법을 제안을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. 한마디로 스스로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생각했던.....암의 전이가 3개월만에 일어났습니다. 위로 전이 소견이 나왔습니다. <후 국장님 걱정 않 됩니까?> <왜.....걱정이 않 됩니까?저 또한 인간이기에 죽기 싫죠. 그러나 이것도 저의 운명이라면 순종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> <참 내~~~도인 다 되었습니다> <깨어있는 하루 하루 그냥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> < 도인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보고요. 일단 소견서 근거하여 아래 내용으로 치료방법을 추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. 참조하고요. 그리고 암세포가 소멸되기 전에 CT에서 암세포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현상도 있지요. 즉 이런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면 “전이”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입니다. 그러니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너무 낙심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치료하고 하루 하루 소중히 살아가봐요)<네~~~~~>

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정보 물에 요오드 15방울 떨어드려서 오전, 오후 공복에 복용을 한다 식후에 염증을 제거하고 음식물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세균을 위하여 “은”물을 100ml를 3회에 걸쳐 복용- 은 물 생성 기계는 미국제품으로 추천(당시에는 한국제품이 없었습니다) 과산화수소 요법으로 45일간 진행을 한다. 구입하는 방법과 진행방법은 별도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단 식용 과산화수소를 복용 할 때는 앞, 뒤 한 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다른 약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. 사용하는 물은 정보물을 꼭 이용을 한다. 아침 즈에 민들레(한의학에서는 포공영)을 구입해서 즈으로 내서 추가하고, 쑥과 민들레를 하루 건너 바꾸면서 즈으로 복용. 비파 잎으로 우려낸 물을